

#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9월 6일~10월 6일 개최... 미륵사지 가치 재조명

미륵사 1400년을 쫓는 빛의 축제가 익산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채운다.

익산시는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간 미륵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익산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미륵사지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한다.

축제 기간 미륵사지는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탈바꿈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총 투입될 예정이다.

드론쇼 등 기존의 공연 중심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것이 올해 축제의 특징이다.

참신한 볼거리가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핵심 프로그램인 레이저 아트쇼는 동탑과 서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두 탑 사이에 설치되는 융복합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현대 예술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공간인 '강당지'는 과거 법회 등 불교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백제시대 석조 기단 건물 중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나며,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리에 반응하는 LED 미디어 기종 설치를 통한 융복합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콘텐츠를 구현했다.

또한, 6만여평 미륵사지 공간 곳곳에 다양한



미륵사 1400년을 쫓는 빛의 축제가 익산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채운다.

인터랙티브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은 더욱 풍성한 축제가 마련된다.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을 위해 익산역과 미륵사지를 오가는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융복합 미디어아트 무대에서 빛과 미디어아트, 타악기 퍼포먼스, 힙합이 융합된 종합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야간경관, 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벚꽃시장, 먹거리트럭이 축제장을 가득 채운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국가유산 레이저쇼

를 진행한다는 큰 자부심과 기대를 품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빛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에게 더욱 쉽게 알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2021년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2021년 최초 선정을 시작으로 3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관람객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익산의 명실상부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통한지 이음교육 '호평'

전주천년한지관서 한지 직접 만들어보며 한지 이해도 높여

전통한지 이음교육이 지역 기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 전통한지 이음교육은 전통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한지의 쓰모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기획,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구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전주시 도서관산업과 △고풍미술관 등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통해 연수교사 대상 학교연계교육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한지 이음교육은 기관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전통한지를 지역 저변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전주예술난장' 연출가·시민참여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제2회 전주예술난장'에서 활동할 차세대 연출가 및 시민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예술난장은 대규모 거리공연 축제로, 올해는 팔복동 산업단지 거리에서 '다시, 팔복'을 주제로 10월 11~13일 3일간 펼쳐진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올해 팔복동으로 장소를 옮기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전주예술난장은 오는 13일까지 차세대 연출가 3인을 모집한다.

'다시, 팔복'이라는 주제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축제의 현장 △오래된 공장 △우리가 할 일 △새로운 기억의 등불 △다시 쓸모 있는 공간으로 변화 등 소주제를 상상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할 연출가를 뽑는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45세 이하 공연연출가로, 1인에

1,2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연출가 공모는 전주 팔복동에 더해질 새로운 이야기와 자유로운 거리공연 축제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실험적인 공모 형태를 시도했다. 지역에선 드물게 연출가를 공개로 모집하는 데다, 신청서 또한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편지글로 받는다.

이와 함께 19일까지 시민참여형 축제학교 '업(up)' 참여자도 모집한다. 거리 축제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소리크루 △댄스 크루 2개 파트로 전주예술난장 주제를 합창하거나 주제작으로 춤을 출 참여단원 및 자원 활동가 각 2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장은성 기자

## 길거리 마당극 '함사세요' 선보인다

전주문화재단, 10일·24일·9월 7일 전주 웨딩의 거리서 개최

전주 웨딩의 거리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혼례가 재현된다.

전주문화재단(대표 최라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길거리 마당극 '함사세요'를 오는 10일과 24일, 그리고 다음 달 7일 세차례에 걸쳐 전주 웨딩거리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6일 재단에 따르면 결혼장려 마당놀이 '함사세요'는 현대에서 보기 힘든 전통 혼례문화를 재현한 공연으로, 신랑 집에서 함을 지고 신부 집 마당에서 함을 파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마당놀이는 만장기를 선두로 한 취타대와 높이 3m의 대형 신랑·신부 인형, 길이 3m의 초대형 닭 인형 등 3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로 구성됐다. 퍼레이드는 웨딩거리에서 전라감영까지 이어지며, 저녁 6시30분부터 7시50분까지 약 50분간 진행된다.

심재균 총감독은 "이번 인형극이 원도심의 새로운 클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원도심 거리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최라기 대표는 "인형극은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매체로, 이를 통해 전통혼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문화 자산을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인형극 '소가 된 게으름뱅이' 17일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8월 문화공연으로 인형극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17일 15시 박물관 강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문화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전래동화인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소재로 한 인형극이다.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와 함께 가족들과 관람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인형극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예약은 8일부터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